

[경남소식]농어촌공사 경남본부, 수해 피해 농가 지원 성금 등

등록 2025.08.19 21:34:21



[창원=뉴스시스]농어촌공사 경남본부, 수해 피해 농가 지원 성금.(사진=농어촌공사 경남 제공)
2025.08.19.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스시스] 김기진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손영식)는 최근 극한 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해 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경남지역본부와 관내 13개 지사 직원들이 합동으로 모금에 동참하였으며, 갑작스러운 수해로 농작물 침수와 하우스 파손 등 시설물에 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성금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피해 농가에 전달될 예정이다.

◇경남농협·함양군, 농촌왕진버스 운행

경남농협(본부장 류길년)과 함양군(군수 진병영)은 19일 함양군 관내 농업인, 주민들 200여명을 대상으로 농촌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농촌 왕진버스'를 운영했다.

농촌왕진버스는 농협과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며 의료 시설이 부족한 농촌을 찾아 종합적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촌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는 사업이다.

이날 행사에는 진병영 함양군수, 이광수 농협중앙회 농업농촌지원부 상무, 정영철 경남농협 경영부분부장, 노춘석 농협함양군지부장, 강순현 지곡농협 조합장이 참석하였으며, 보건의료통합봉사회 의료진은 양·한방 의료봉사를, 봉안경원에서는 검안·돋보기 서비스를 제공했다.



[창원=뉴시스]경남농협·함양군, 농촌왕진버스 운행.(사진=경남농협 제공) 2025.08.19.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